

대여금 변제충당과 소멸시효



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법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 중 어떤 채무를 변제할지 변제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채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4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변제가 이뤄진다.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에 우선 충당된다.

채무 전부가 이행기에 도래했거나 도래하지 않았다면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이자율이 높은 채무 등)의 변제에 우선 충당된다. 변제이익도 같다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에 충당된다.

그런데 최근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채무자의 변제이익이 많다고 봐야 하는지가 문제되는 사건이 있었다.

원심(항소심)에서는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채무

자의 변제이익이 많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변제제공 당시 가장 최근에 성립한 채무가 소멸시효가 가장 나중에 완성될 것이라고 보아 위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5255 판결).

대법원은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 규정을 보면, 이행기 도래 여부와 변제이익을 별개로 취급하고 있어 변제이익을 소멸시효 기간의 장단으로 판단할 수 없고, 소멸시효의 중단 등에 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변제 당시 남아있는 소멸시효기간이 길다고 하여 해당 채무의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등 사후적 사정에 따라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및 그 효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현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와 먼저 완성되는 채무로 변제이익이 많고 적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시효기간의 길고 짧음만으로는 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동일한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를 부담한 채무자가 특정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일부 변제를 하면 이는 특정 채무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지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보아 모든 채무에 관해 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채무자가 다수의 채무 존재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특정하지 않고 변제했다면, 그 자체가 모든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실무상 채무자의 일부 변제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폭넓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례는 소멸시효와 변제이익의 관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법정변제충당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 채무자의 일부 변제가 소멸시효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재확인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이 앞으로 채권-채무 관계에서 변제충당과 소멸시효 중단을 둘러싼 분쟁을 줄이는데 명확한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법인 바른

빚투와 가계부채



김주혜
(금융부)

빚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길을 바꿨다. 가계부채 관리의 초점이 주택담보대출에 맞춰진 사이 돈은 다른 통로로 흘렀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9조3000억원 늘었다.

주담대 증가폭은 줄었지만 기타대출은 5조3000억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은행권에서는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같은 시기 증시에서는 신용거래용자 잔고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집을 사기 위한 빚은 조이고 있지만, 주식을 사기 위한 빚은 다른 이름으로 불어나고 있는 셈이다.

투자는 개인의 선택이다. 상승장을 보고

기회를 잡으려는 마음까지 탓할 수는 없다. 문제는 빚을 낸 투자가 개인의 판단으로 시작돼도, 그 후폭풍은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가 오를 때 신용은 수익률을 키우지만, 주가가 흔들릴 때는 손실의 폭을 키운다. 반대매매가 늘고 소비 여력이 줄면 그 부담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로 번진다.

가계부채 관리가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주담대를 누르면 대출 수요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신용대출, 한도대출, 증권사 신용거래로 옮겨갈 수 있다.

정책이 한쪽 문만 바라보는 사이 다른 문으로 위험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총량 관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부채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떤 목적의 돈이 늘고 있는지까지 봐야 한다.

기타대출은 주담대보다 위험 신호가 늦게 잡히는 경우가 많다. 신용대출과 한도대출은 생활자금인지, 투자자금인지, 기존 부채를

돌려막기 위한 돈인지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금융당국도 뒤늦게 은행권 자율관리를 점검하고 있다. 고액 연방자의 신용대출 한도 축소 같은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필요한 조처다. 다만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빚투의 유혹을 막기 어렵다. 자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남아 있는 한 돈은 언제든 우회로를 찾는다.

가계부채는 부동산 문제이기 전에 금융 시스템의 문제다. 집값을 자극하는 대출만 위협한 것이 아니다. 더 비싸고 더 짧고 더 불안정한 빚이 투자 열풍을 타고 늘어날 때 위험은 오히려 더 빨리 커질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빚투에 나선 개인을 향한 훈계가 아니다. 가계부채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위험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 보는 정책의 시야다. 물길을 막으려면 둑만 높여서는 안 된다. 물이 새는 곳을 먼저 찾아야 한다.

/gh471@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15일 (음 5월 1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역경 없이 보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운세입니다. 60년생 멀리 내다보세요. 72년생 사세를 줄여야 하겠습니까. 84년생 바라는 직종이 눈에 띄질 않습니다.



49년생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61년생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73년생 병자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는 병입니다. 85년생 여건은 모든 일에 좋지 않으니 자중하세요.



50년생 여자를 주의하세요. 62년생 금전운이 좋습니다. 74년생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천천히 건너세요. 86년생 남자아이를 낳게 되며 아이가 다소 약한 것이 흠입니다.



51년생 여행을 가도 실속이 없고 피곤합니다. 63년생 문단속과 물건 관리에 유의하세요. 75년생 배우자나 연인과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87년생 양보는 것이 오히려 이득입니다.



52년생 주위 사람들과 갈등을 주의하세요. 64년생 시비가 있으면 싸우지 말고 피하세요. 76년생 때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88년생 아직은 행동하기 보다는 좀 더 참는 게 좋습니다.



53년생 웃음이 만발하는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65년생 집안에 좋은 경사가 있겠습니까. 77년생 다칠 수 있으니 행동과 안전에 주의하세요. 89년생 이성과의 싸움은 양보하는 게 좋습니다.



54년생 공허로운 재물을 탐하지 마세요. 66년생 작은 것이 쌓여 큰 것을 이루니 차근차근 성취하세요. 78년생 술집 가까이 가지 마세요. 90년생 건강에 유의하세요.



55년생 구설수에 시달리게 됩니다. 67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지 않는 운입니다. 79년생 노력하지만 보람없이 무너집니다. 91년생 수심만 가득하다 하겠습니까.



56년생 모든 것이 순탄한 하루입니다. 68년생 집안에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80년생 이성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92년생 지금은 뒷 본의 말을 듣는 게 좋습니다.



57년생 외출하면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69년생 다른 사람보다는 본인 일에만 집중하세요. 81년생 성공한 추진보다는 기다림이 더 필요합니다. 93년생 지금은 인내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58년생 싸우던 사람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70년생 천천히 때를 기다리는 것이 길합니다. 82년생 조금만 더 참으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94년생 운이 길할수록 주위의 시샘도 함께 주의하세요.



59년생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71년생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길합니다. 83년생 운동을 하면 몸과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95년생 사방에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김상회의四季

금값의 향방



얼마 전까지 금값은 투자를 이야기할 때 가장 뜨거운 화두였다. 금값이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할 만큼 쉬지 않고 올랐기 때문이다. 순금 한 돈 가격은 80만 원을 넘는 지 오래다. 예전에는 금을 결혼 예물이나 선물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제 금은 장신구라기보다 금융자산에 가깝다. 경제가 흔들리면 사람들은 안전자산인 금을 찾는다.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 각국이 엄청난 돈을 시장에 풀기 시작하면서 금값은 빠르게 상승했다. 금리는 내려가고 막대한 규모의 돈이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유동성이 늘어나며 달러 가치에 대한 불안도 커졌다. 달러 가치가 흔들리자 사람들은 어디에 돈을 투자해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고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금이었다.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세계 경제 불안은 더 심해졌다.

중동 갈등에 더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도 격렬해졌다. 세계경제와 경제가 불안해지자 안전자산인 금을 찾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 금값은 연말을 지나 2029년 무렵 크게 오동칠 것이다. 물론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여러 경제적 흐름을 보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우선 미국의 재정위기가 금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다. 미국 국가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부채로 인한 재정위기를 피하려면 미국은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문제는 시장에서 그 국채를 언제까지 어느 만큼 소화할 수 있느냐이다. 만약 미국 국채의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달러 가치에도 충격이 미치게 된다. 그런 순간이 오면 투자자들은 다시 금을 찾을 것이다. 2029-2030년은 세계 경제의 커다란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금리 정책, 글로벌 부채 문제, 원자재 부족, 지정학 갈등 같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겹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6시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도의 퍼즐과정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 | | | |
|-------------|---------------------------------|---------|-----|
| 발행·편집인 | 이장규 | 편집국장 | 윤휘중 |
| 인쇄인 | | 중앙일보(주) | |
| 광고문의 / 독자센터 | 02)721-9851, 9826 / 02)721-9861 | | |
| 일간 메트로 |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31호 | | |
| 일간 메트로경제 |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35호 | | |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